

AI 시대, 전통의 '아우라'는 어떻게 '변용' 되는가? 『千秋詩頌』에 대한 성찰*

배주애** · 최영준***

— 목 차 —

1. 들어가며
2. 벤야민의 예술이론과 『천추시송』
 - 1) AI 시대의 벤야민적 재해석
 - 2) 중국의 AI 국가 전략과 『천추시송』
3. 『천추시송』의 미학과 아우라의 변용
 - 1) 원작 시와 2차적 내러티브의 관계
 - 2) 기술적 재현의 미학적 성과와 한계
 - 3) 다중모드(Multi-modal) 서사와 감성적 공명
4. 『천추시송』의 문화산업적·정치적 함의
 - 1) 플랫폼별 『천추시송』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2) '중국 이야기'의 전파 도구
 - 3) '신질생산력'의 빛과 그림자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독자적 생성형 AI 기술 'CCTV미디어대모델'을 통해 제작된 애니메이션 『천추시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발터 벤야민의 예술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중국의 고전시(詩)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가 지닌 고유한 '아우라(aura)'가 오직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AI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3.

**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중국학전공 조교수(제1저자)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기술을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생성되면서, 작품이 어떻게 ‘전시적 가치(exhibition value)’로 ‘변용’되는지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AI 기술이 전통문화 콘텐츠의 재현과 대중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AI 기술의 현재와 『천추시송』의 기술적 구현 방식, 시청자들의 수용양상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AI를 통해 생성된 예술이 직면한 창작 주체, 미학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변모를 들여다 보았다.

키워드 : AI 애니메이션, 발터 벤야민, 아우라, 전통문화, 중국 AI 산업, 기술적 복제, 천추시송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성형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퍼져 나갔으며, 우리의 생활 깊숙이 침투되었다. 이는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며, 때문에 콘텐츠 창작과 수용의 패러다임 역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지, 음악, 텍스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방식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AI가 창작의 주체자로서 기능할 가능성과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관영방송 CCTV를 통해 애니메이션 『천추시송(千秋詩頌)』¹⁾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중국 고전 시(詩)와 그 창작 배경에 얽힌 에피소드를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의 인명, 지명, 작품명, 프로그램명은 외래어표기법에 맞춰서 한국어로 작성한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작성된 첫 단어는 중국어 표기를 함께할 것이며, 시인 ‘두보’나 중국의 대화형 챗봇 ‘어니봇’ 등 이미 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명칭은 외래어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널리 쓰이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되,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중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다.

뮌어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CCTV미디어대모델(央視听媒体大模型)’이라는 중국의 독자적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AI가 창작의 주체자로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직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된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제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전통미학을 재현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터 벤야민의 예술 이론 중 ‘아우라 해체(aura's dissolution)’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생성형 AI가 창작의 주체로 예술을 재현할 때, 그 재현이 단순히 예술의 ‘아우라’를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기술적 재현을 통해 감응의 층위가 전환·재구성되는 ‘아우라의 변용(transformation of aura)’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러한 변용은 원작의 현존성을 파괴하기보다는, 기술과 대중적 수용의 접점에서 새로운 의미망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체’나 ‘복제’ 개념과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본다.

『천추시송』이 중국 고전시 및 전통문화를 AI 기술로 재해석하고, 수목화풍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생성해 생산 및 배포한 선진적인 시도이기에는 하나,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따라서 AI 기술을 이용한 전통문화의 복제와 전통예술이 지닌 고유한 본질, 즉 ‘아우라(aura)’가 어떻게 변용되고 새로운 ‘전시적 가치(exhibition value)’를 획득하며 대중과 소통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자신의 저서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아우라’와 ‘전시적 가치’ 개념의 제시를 통해 예술작품의 복제가 원본이 지닌 고유한 시공간적 현존성, 즉 ‘아우라’를 해체하는 대신, 작품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전시적 가치’를 부여하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변모시킨다²⁾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천추시송』을 통해 벤야민의 이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기술 의존적 재현이 원작의 예술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2)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도서출판 b, 2017).

한다.

『천추시송』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국내에서는 장운천의 논문에서 『천추시송』이 생성형 AI로 제작된 작품에 대한 관객의 시청의향³⁾에 대한 연구사례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그 외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사례로 소개가 되었을 뿐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중국에서는 최근 『천추시송』을 주제로 한 학술적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CNKI에 등재된 논문들을 보면 주로 ‘AIGC 기술이 문화 혁신에 제공하는 동력’, ‘고전 시와 AI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서사적 혁신’, ‘몰입형 시청각 경험을 통한 교육적 의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 교육적 의미를 연구한 논문을 제외하고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몇 편의 논문을 보면 정뤼린은 ‘수목풍의 미학적 구성’을 통해 고전 시의 텍스트를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는 것, 즉 시각화 전략을 분석하면서 AI 기술이 전통문화의 전파 효율을 높이지만, 동시에 ‘콘텐츠 동질화’나 ‘저작권 문제’ 등의 기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재고를 고찰하고 있다⁴⁾. 주톈평 등은 『천추시송』이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사’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국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⁵⁾. 멩잉은 AI 기술이 프로그램 장면 구성과 표현에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⁶⁾, 뤼량 등은 『천추시송』이 수목국풍을 핵심 미학 기조로 삼아 AI 기술로 고전시와 그림의 상호텍스트성을 재구성했다고 분석했다⁷⁾. 본 연구는

3) 장운천, 「디지털 접근성이 AIGC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관객의 지속적 시청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AIGC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천추시송』 관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24년, 42(4), pp. 471-493.

4) 鄭若林, 「基于AI技術的古詩類短視頻創作中的視覺化策略研究——以『千秋詩頌』為例」, 『傳媒論壇』, 2025年 第12期.

5) 朱田鳳·程雅男·陳艷, 「文生視頻賦能“傳播+教育”新實踐」, 『山西青年』, 2024年 第8期.

6) 孟穎, 娜仁通力嘎, 「淺談中央廣播電視總台AI動畫片『千秋詩頌』的創新與探索」, 『中國廣播』, 2024年 第6期.

7) 呂良, 孫亮, 「文化傳承視域下AIGC在“詩動畫”中的創新應用——以“千秋詩頌”為例」, 『中國廣播』

이러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천추시송』의 기술적 성과와 미학적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하여, AI 예술의 인문학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 벤야민의 예술이론과 『천추시송』

1) AI 시대의 벤야민적 재해석

발터 벤야민은 그의 저서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예술작품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으로 ‘아우라’ 개념을 제시했다. ‘아우라’ 개념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원작이 갖는 ‘지금과 여기’ 다시 말해, 예술작품의 ‘일회적 현존성’이다. 이는 예술작품이 지닌 유일무이한 시공간적 현존성, 진품성, 역사성, 그리고 전통과의 연관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의 예술, 특히 회화나 조각은 그 자체로 고유한 현존성을 지니고 있었고, 종교적 제의의 일부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⁸⁾. 이처럼 예술작품의 가치가 제의에 기반을 둘 때, 예술의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진과 영화와 같은 기술적 복제의 다양한 방법들이 출현함으로써 인해 이러한 ‘아우라’는 위축되거나 몰락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기술적 복제는 원본의 유일무이한 현존성을 파괴하는 대신, 복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예술을 소수에서 다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벤야민은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작품의 가치 중심이 ‘제의적 가치(cult value)’에서 ‘전시적 가치’로 이동하며,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모한다고 보았다.⁹⁾ 이는 예술이 더 이상 제의 속에서 폐쇄된 존재가 아니라, 대중적 접근성을 가진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影視, 2024年 第23期.

8)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위의 책, pp. 20-26.

9)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위의 책, pp. 32-38.

『천추시송』은 고전시를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 시인의 삶과 창작배경을 중심으로 서사를 재구성한 ‘2차적 내러티브’에 가깝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추시송』을 ‘아우라’의 해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벤야민이 논의했던 기술적 복제는 원본과 복제품이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을 때 유효했다면, 생성형 AI는 원본의 정서나 내용을 ‘학습’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창작’해 내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천추시송』의 사례를 ‘아우라의 변용(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중국 고전시가 가진 언어적·정서적 ‘아우라’가 AI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시각적·서사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는 원작¹⁰⁾의 감성 층위를 새롭게 전이시키는 과정이다. 원작의 섬세한 표현은 때로 평면적으로 단순화되거나, 때로는 기술적 새로움이라는 ‘전시적 가치’로 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용’은 원작의 가치를 단순히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미학적 맥락 속에서 감응의 층위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벤야민의 이론을 생성형 AI 시대에 맞게 확장하는 하나의 해석적 시도이다.

2) 중국의 AI 국가 전략과 『천추시송』

중국은 일찍이 AI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술 발전에 힘써왔다. 시진핑 주석의 2014년 연설¹¹⁾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차세대 AI 발전 계획(2017)’ 등을 통해 AI 기술육성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 로드맵을 추진했다.¹²⁾

10) 본 논문에서는 원작의 개념을 『천추시송』을 제작할 때 사용한 중국 고전시와 전통문화(복장, 장신구, 건축물, 식기류 등)로 특정 한다.

11) 「在中國科學院第十七次院士大會、中國工程院第十二次院士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 2014年 6月 10日, <http://cpc.people.com.cn/n/2014/0610/c64094-25125594.html>(검색일: 2024년 7월 18일).

특히 2024년 양회에서는 AI+ 전략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임바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AI 응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¹³⁾ 중국의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는 AI 분야를 단순히 국가 기술발전 위한 목표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고도화를 이끌어 내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양회에서 시주석이 처음 언급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¹⁴⁾ 개념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는데, 이는 기존의 노동 및 자본 투입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AI와 같은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중국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6G 기술과 더불어 AI+ 를 통한 디지털 경제의 창의성 발휘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천추시송』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상징적 결과물로 이해된다.

『천추시송』은 중앙방송총국(CMG)과 상하이인공지능연구소(上海人工智能實驗室)가 공동개발한 ‘CCTV 미디어 대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중국의 자주적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 『천추시송』은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를 소재로 하여, AI를 통한 전통문화 교육이라는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¹⁵⁾도 부합하는 작품이다. 특히 방영 시

12) 「新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 中國政府網, 2017年 7月 20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검색일: 2024년 7월 18일).

13) ‘Embodied Intelligence’는 물리적 실체(로봇 등)를 가진 지능 시스템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고 지능을 발전시키는 AI 연구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제조업 고도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具身智能到底是什麼? 跟機器人又有什麼不同?」, 人民網, 2025年 3月 11日, <http://kpszg.people.com.cn/n1/2025/0311/c404214-40436119.html>(검색일: 2025년 7월 2일).

14) 「加快形成新質生產力：是什麼、爲什麼、做什麼?」, 國家信息中心中國經濟信息網, 2024年 2月 6日,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9/84a815a4529f425ca7961367efa8114f/c.html>
 (검색일: 2025년 7월 2일).

점이 2024년 2월, Open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가 공개된 직후 CCTV를 통해 방영되었다는 것은 중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정치적·기술적 배경은 『천추시송』의 ‘변용된 아우라’가 단지 미학적 차원이 아닌, 국가 권력과 기술 담론의 결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한다.



그림 1. 이미지 출처: 『CCTV. 节目官网』에서 캡처(중국을 대표하는 시인 이백의 형상)

벤야민은 예술의 기술적 복제가 예술의 ‘정치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¹⁵⁾ 『천추시송』은 바로 그러한 예술의 정치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술, 권력, 미학이 교차하는 복합적 장(場)이다. 이 작품은 예술의 ‘전시적 가치’가 국가의 이념적 도구로 전화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AI 시대의 문화정치학적 함의를 함축한다.

15) 王銑·鄧秋鵬, 「文生視頻賦能“傳播+教育”新實踐——以中國首部文生視頻AI動畫片『千秋詩頌』爲例」, 『山西青年』, 2024年 第8期, pp. 193-195.

16)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위의 책, pp. 37-38.

3. 『천추시송』의 미학과 아우라의 변용

본 장에서는 『천추시송』의 주요 에피소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적 ‘아우라’가 AI라는 매체를 통해 시각적 서사와 미학으로 ‘변용’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원작 시와 2차적 내러티브의 관계

『천추시송』은 원작 시의 텍스트를 그대로 영상화하는 대신, 시인의 생애와 창작배경을 중심으로 한 ‘2차적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이는 원작이 지닌 언어적·정서적 ‘아우라’를 서사적으로 ‘변용’시키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주토펙 등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야기 배경, 줄거리, 인물을 합리적으로 보충’함으로써 서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국 이야기(講好中國故事)’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¹⁷⁾ 그러나 이 과정은 원작이 내포하고 있는 다의성과 함축미를 프롬프트를 통해 명확한 서술과 교훈적인 서사로 환원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천추시송』의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2편을 그 예를 들어 살펴보자. 고적(高適)의 「별동대(別董大)」 편은 원작 시의 네 구절이 담고 있는 쓸쓸하면서도 장대한 이별의 정서를 넘어, 고적과 동정란(董庭蘭)의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별동대」는 동정란이 재상 방관(房管)의 연회에서 무시당하다가 고적의 인정을 받아 지기(知己)가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그대를 몰라주는 이 없다(莫愁前路無知己)’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 구체적인 서사적 맥락을 부여한다.¹⁸⁾ 이러한 서사의 보충은 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지는 몰라도, 그와

17) 朱田鳳·程雅男·陳豔, 위의 논문, p. 77.

18) 張秀麗·李景薇, 「論文生視頻AI動畫片『千秋詩頌』的“技術+文化+藝術”創新」, 『新聞知識』, 2024年 第9期, p. 63.

동시에 원작이 지닌 여백과 상상의 공간을 축소시킨다. 시를 읽는 독자가 각자의 경험을 투영하여 느낄 수 있었던 복합적인 감정, 즉 시가 가진 고유한 ‘아우라’는 AI가 제공하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서사 속에서 단일한 의미로 수렴된다.

두보(杜甫)의 「춘야희우(春夜喜雨)」편 역시 마찬가지다. 애니메이션은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모습, 그로 인해 근심하는 두보의 모습, 두보 부부의 대화를 추가하여 ‘때를 알아 좋은 비(好雨知時節)’가 내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이는 두보 시가 가진 내제적 의미, 예를 들어 ‘윤물세무성(潤物細無聲)’이라는 시구에 담긴 섬세하고 고요한 생명의 감각을 단순히 가뭄 해소라는 사회적 효용성의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즉, 결과적으로 시의 ‘아우라’는 AI가 생성한 서사적 명료함 속에서 단일 의미로 수렴된다.

이러한 ‘변용’은 의도적으로 대중,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원작의 모호함과 깊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적 노동이 요구되지만, AI로 재해석된 애니메이션은 쉽고 명확하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2) 기술적 재현의 미학적 성과와 한계

『천추시송』 제작진은 ‘CCTV미디어대모델’이 인물의 실사 데이터, 각 시대별 건축 양식과 경관, 복식과 장신구 이미지, 384가지에 달하는 중국 전통 색채 라이브러리, 그리고 춘하추동과 전통 명절에 어울리는 색상 데이터베이스와 다량의 중국풍 애니메이션 시청각 자료를 집중적으로 학습한 덕분에 동양적 미학이 깃든 중국 특유의 애니메이션 장면과 인물, 그리고 복식을 성공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었다¹⁹⁾고 설명한다.

19) 李丹, 「首部中國原創生視頻AI系列動『千秋詩頌』播出——一場中國詩詞與人工智能的“雙向奔赴”」, 『影視制作』, 2024年 第3期,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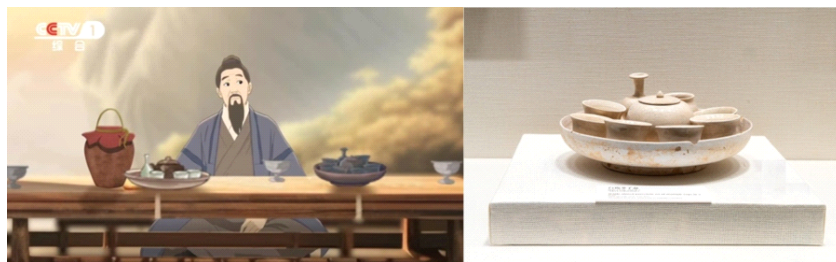


그림 2. 이미지 출처: 상하이AI연구소

정워린과 튀량 등은 이러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가 ‘담묵준염(淡墨皴染) 알고리즘’이나 ‘묵색혼염(墨色暈染) 알고리즘’ 등을 통해 전통회화의 기법을 디지털로 재구성했다²⁰⁾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과고인장(過故人莊)」에서는 전원풍경을, 「춘야회우」에서는 밤비 내리는 풍경을 수묵기법으로 표현하여 ‘시화교용(詩畫交融)’의 미학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성취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실제 시각적 결과물, 즉 애니메이션은 시청자 비평에서 ‘PPT 같다’, ‘화면이 흐릿하고 인물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²¹⁾는 혹평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미숙함을 넘어 AI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 지닌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AI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의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물을 생성해 낸다. 다시 말해 ‘CCTV미디어대모델’이 생성하는 ‘수묵국풍’은 특정 화가의 독창적인 필치나 개성적인 화풍이 아니라, 학습된 수많은 ‘중국적’ 이미지들의 평균값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미학적 평균화(aesthetic averaging)’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I는 장인의 ‘장심독운(匠

20) 鄭若林, 「基于AI技術的古詩類短視頻創作中的視覺化策略研究——以『千秋詩頌』爲例」, 『傳媒論壇』, 2025年 第12期, p. 110.

21) 「千秋詩頌短評」, 『豆瓣電影』,
<https://movie.douban.com/subject/36788792/comments?status=P> (검색일: 2024년 7월 15일).

心獨運)이나 예술가의 ‘인문정신(人文精神)’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²²⁾,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중국다움’의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한다. 이로 인해 작품은 기술적으로는 정교하지만, 예술적으로는 개성과 정신이 결여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림 3. 이미지 출처: 『CCTV. 节目官网』왼쪽은 「별동대」, 오른쪽은 「춘야희우(春夜喜雨)」에서 각각 캡처

벤야민은 기술적 복제가 원본의 ‘아우라’를 약화시킨다고 보았다²³⁾. 『천추시송』 역시 기술적 효율성과 표준화된 미감 속에서 전통예술의 고유한 현존성을 희석시키는 역설적 사례로 해석된다.

3) 다중모드(Multi-modal) 서사와 감성적 공명

『천추시송』은 고전시라는 장르에 대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음악, 음향, 성우의 연기 등 다중모드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다층적인 감성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중모드적 구성은 전통시의 언어적 ‘아우라’를 상실한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감각적 ‘공명’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워핀은 이를 ‘시청각 협동(視聽協同)’ 전략이라 부르며, 「장진주(將進酒)」편에서는 시 낭송의 호방함을 격정적인 배경음악의 리듬과 결합시켰고, 「춘

22) 呂良·孫亮, 「文化傳承視域下AIGC在“詩動畫”中的創新應用——以『千秋詩頌』爲例」, 『中國廣播影視』, 2024年 第23期, p. 93.

23)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위의 책, pp. 37-38.

야희우(春夜喜雨)』 편에서는 두보의 얼굴 표정과 음성 톤을 섬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시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확장했다고 분석했다²⁴⁾. 이처럼 음향, 이미지, 언어의 융합은 전통적 시 감상의 내면적 사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감각적 몰입 체험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명’은 감각적 자극의 강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감상의 깊이가 아닌 ‘즉각적 반응성’으로 귀결되는 위험을 내포한다. 벤야민은 영화를 보는 것을 회화를 감상하는 것과 비교하였는데, 영화를 보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영상으로 인해 개인이 정신을 ‘집중’시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여유가 없이 정신을 ‘분산’ 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²⁵⁾. 이러한 벤야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를 읽는 행위가 사유적 ‘집중’을 요구한다면, 『천추시송』을 시청하는 행위는 감각적이고 오락적인 ‘분산’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시의 ‘아우라’가 개인적 해석과 상상력의 영역에서 기술적으로 조정된 정서신호로 대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시의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사유의 여백’이 사라지고, 감각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표준화는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콘텐츠의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적 다양성과 해석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결국 『천추시송』의 다중모드 서사는 고전시의 언어적 ‘아우라’를 시청각적 ‘공명’이라는 기술적 대체물로 변환시킨다. 이 ‘공명’은 감각의 풍부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적 사유의 깊이를 얕게 만들며, 인간의 감정 경험을 알고리즘적 설계에 종속시킨다. 『천추시송』은 감성의 데이터화, 정서의 표준화가 어떻게 ‘감동의 자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4) 鄭若林, 위의 논문, p. 111.

25)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위의 책, pp. 86-89.

4. 『천추시송』의 문화산업적·정치적 함의

벤야민의 이론에 따르면, 기술 복제는 예술의 ‘제의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대신 ‘전시적 가치’를 극대화 한다²⁶⁾. 『천추시송』은 이러한 ‘전시적 가치’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며, 나아가 문화산업적·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다. 본 장에서는 1) 플랫폼별 수용 양상, 2) ‘중국 이야기(講好中國故事)’의 전파 도구로서의 기능, 3) ‘신질생산력’ 담론 속의 AI 창작 윤리라는 세 측면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겠다.

1) 플랫폼별 『천추시송』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천추시송』의 수용은 단일하지 않고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예술의 ‘아우라’와 ‘전시적 가치’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 방송 당시 4.2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²⁷⁾하고, 관영 매체와 KOL²⁸⁾의 영향력이 강한 웨이보에서는 ‘기술적 성과’와 ‘국가적 자부심’을 내세운 긍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반응은 AI 창작물의 기술적 스펙터클을 ‘전시적 가치’로 소비하는 전형적 사례다. 대중은 작품의 미학적 완성도보다, 그것이 국가 기술력의 상징으로 전시되는 장면 자체를 소비한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담론이 활발한 더우반(豆瓣)과 샤오홍수(小紅書)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더우반과 샤오홍수에는 나란히 “PPT로 만든 애니메이션

26)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위의 책, pp. 20-26.

27) 「收視第一!中國首部文生視頻AI動畫片『千秋詩頌』首播反響熱烈」, 人民網, 2024年 2月 28日, <http://politics.people.com.cn/n1/2024/0228/c1001-40184715.html>(검색일: 2024년 6월 10일).

28) Key Opinion Leader의 약자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나 전문가를 의미한다. 주로 인플루언서, 모델, 배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KOL 마케팅’에 활용된다.

선 같다”²⁹⁾³⁰⁾는 혹평이 이어졌다. 댓글의 다수는 ‘미학적 진정성이 결여된 콘텐츠’하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기술적·정치적 권위와 예술적 진정성 사이의 균열을 보여준다. 벤야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예술이 ‘전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만, 동시에 ‘아우라’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주요 플랫폼별 수용 양상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중국 내 주요 플랫폼별 『천추시송』 수용 양상 비교

플랫폼	주요 이용자층	초기반응	주요 긍정 평가	주요 부정 평가
웨이보 (微博)	광범위한 대중, KOL 영향력 강함	압도적 긍정, 관영매체 주도	기술적 성과, 국가적 자부심, 중국풍 미학	비관적 목소리 적음
샤오홍수 (小紅書)	젊은 층, 실사용 후기 중심	긍정적 반응 후 비관적 여론 확산	일부 시각적 요소 호평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낮은 완성도, 조악한 품질
더우반 (豆瓣)	영화/드라마 애호가, 비평적 성향	저조한 참여, 압도적 부정	거의 없음	PPT 수준의 조악함, 시에 대한 이해 부족, 미감 훼손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천추시송』이 ‘기술적 스펙터클로서의 예술’이라는 구조 속에서, 대중적 주목과 예술적 깊이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취향의 차이를 넘어, 예술의 가치가 기술적 스펙터클로 대체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또한 『천추시송』이 예술작품이기 이전에

29) 『『千秋詩頌』短評』, 豆瓣電影, <https://movie.douban.com/subject/36788792/comments?status=P>(검색일: 2024년 6월 10일).

30) 『『千秋詩頌』第一集來啦!』, 小紅書, 2024年 2月 28日,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5dd7c22000000000102b433?xsec_token=ABGEgukKriK147VvY2hFT7r0I-P5-27-hjRQll75r9iDc=&xsec_source=pc_search&source=web_explore_feed(검색일: 2024년 6월 10일).

정치적 기획물로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국가 미디어가 만들어낸 ‘전시적 가치’는 대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비판적 수용자에게는 예술적 진정성(아우라)의 결핍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기술 복제시대의 예술이 ‘대중적 화제성’과 ‘비판적 예술성’ 사이에서 양분되는 현대적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2) ‘중국 이야기’의 전파 도구

『천추시송』은 단순한 문화콘텐츠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이 국가 통일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³¹⁾되고, 국가 방송사인 CCTV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방영 직후 신속하게 다국어 버전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 70여 개 주류 미디어를 통해 보급되었다³²⁾. 이는 전통문화 재현의 문제를 넘어, AI를 활용한 문화 외교·소프트파워 실험의 성격을 지닌다.

‘정치의 심미화’와 ‘예술의 정치화’의 경계는 이 지점에서 흐려진다. 중국은 AI라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의 문화유산(고전시)을 매력적이고 소비하기 쉬운 상품으로 포장했다. 수묵화풍의 아름다움과 고전 시의 고결함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진보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투사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³³⁾ 이 과정에서 예술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수행하는 매개체로 동원된다.

특히 청소년 교육을 목표로 한 형식적 단순화는, 문화전달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정체성의 내면화를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천추시송』의

31) 鄭玄, 「AIGC環境下文化類節目的創新表達:以央視動畫片『千秋詩頌』為例」, 『現代視聽』, 2024年 第10期, p. 47.

32) 孟穎·娜仁通力嘎, 「淺談中央廣播電視總台AI動畫片『千秋詩頌』的創新與探索」, 『中國廣播』, 2024年 第6期, p. 76.

33) 王銑·鄧秋鵬, 「文生視頻賦能“傳播+教育”新實踐——以中國首部文生視頻AI動畫片『千秋詩頌』為例」, 『山西青年』, 2024年 第8期, p. 194.

‘전시적 가치’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정치적 감성(affective politics)’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3) ‘신질생산력’의 빛과 그림자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천추시송』은 전통시의 언어적 ‘아우라’를 시청각적 ‘공명’으로 변용하는 동시에, 그 변용이 국가 전략(신질생산력)과 결을 같이 하는 지점에서 의미가 배가된다. 곧 이 작품은 미학적 논의와 정치경제적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신질생산력’은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AI 등 첨단기술을 매개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³⁴⁾하려는 국가적 기획이며, 『천추시송』의 제작과 배급은 그 기획의 상징적 실현으로 자리매김한다.

제작진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8개월 이상 걸릴 제작 기간을 4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³⁵⁾. 이는 ‘신질생산력’이 표방하는 고효율성의 가시적 성과다. 그러나 앞서 3장에서 확인했듯, 이러한 효율성 강화는 미학적 평균화와 정서의 표준화를 야기함으로써 작품의 ‘아우라’를 약화시킬 위험을 동반한다. 다시 말해, 효율성의 빛은 종종 품질의 그늘—표현의 획일화, 감응의 피상화—을 길게 드리운다.

이 모순은 곧 창작노동의 구조와 윤리 문제로 이어진다. AI 중심 파이프라인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할이 ‘창안자’에서 ‘검수자·조정자’로 축소될 때, 저작권과 크레딧의 귀속은 모호해진다. 학습 데이터의 출처·권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AI가 산출한 결과물을 공적 문화재의 재현이라는 명목으로 전시할 때, 전통의 권위는 갱신되지만 창의노동의 가치는 투명하게 보상받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천추시송』이 보여준 정치적 가시성의 증대(전시적 가치의 극대화)와 예술적 자율성의 위축 사이의 긴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34) 「加快形成新質生產力：是什麼、爲什麼、做什麼？」, 위의 사이트, (검색일: 2025년 7월 2일).

35) 鄭玄, 위의 논문, p. 48.

따라서 『천추시송』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기술적 미숙’이 아니라, 효율-품질의 균형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관점에서, 이는 벤야민적 틀(제의적 가치의 약화와 전시적 가치의 증대)과 중국식 ‘신질생산력’ 담론(AI+ 문화산업)의 접면에서 읽혀야 한다. 이때 기술 효율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예술적 감응과 해석의 깊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법론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Q Index(효율-품질 균형 지수)’를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AI 기반 문화콘텐츠가 ‘신질생산력’ 담론 속에서 효율의 가속과 예술적 감응의 깊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비평적 장치이다. ‘EQ Index’는 (1) 제작 효율성(제작 기간 대비 러닝타임과 장면 밀도), (2) 표현 다양성(인물의 표정·동작 등 미세한 감정 변수의 폭), (3) 색채 변동성(색채 팔레트의 변화 범위와 반복 정도), (4) 수용 반응성(시청자 평점이나 감상평의 분산도)이라는 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지수는 각 항목의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 항목 사이의 불균형 양상—예를 들어, 제작 효율성은 높지만 표현 다양성과 색채 변동성이 낮은 경우—을 통해 작품의 미학적 경향과 감성 구조를 비평적으로 읽어내기 위한 장치이다. 다시 말해 ‘EQ Index’는 기술 효율을 부정하거나 예술을 수치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AI 기술이 예술의 감응과 해석의 깊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인문학적 관찰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윤리적·정책적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a) 데이터 투명성—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와 권리자 명시, (b) 크레딧 윤리—인간 창작자와 알고리즘의 기여 구분, (c) 교육적 적용기준—AI 생성 콘텐츠의 교육 현장 사용 범위 설정 등은 ‘EQ Index’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실천적 과제³⁶⁾들이다. 그러므로 ‘EQ Index’는 기술 효율성과 예술 감응의 균

36)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aris: UNESCO Publishing, 2023.

형을 되묻는 인문학적 장치로서, 벤야민이 말한 ‘제의적 가치’와 ‘전시적 가치’의 변화를 AI 시대의 구체적 사례 속에서 재조명하게 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중국 최초의 AI 생성 애니메이션 『천추시송』을 통해, 기술이 예술의 언어를 어떻게 바꾸고, 인간의 감응을 어떤 방식으로 재편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벤야민이 말한 ‘아우라’는 기술복제의 시대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옮겨 다니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천추시송』은 그러한 변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작품에서 고전시의 언어는 영상과 음향의 세계로 이동하면서, 사유의 깊이는 알아지고 감각의 반응은 빨라진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한 퇴보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이 인간의 감성을 모방하는 과정이자, 인간이 다시 자신의 감각과 사고를 성찰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신질생산력’이라는 중국의 국가적 담론 아래 제작된 이 애니메이션은 효율과 감응, 속도와 깊이, 기술과 예술 사이의 긴장을 동시에 드러내며, 현대 중국 문화정책의 이념과 예술의 내면이 맞닿는 장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천추시송』은 실패한 실험이 아니라, 기술 시대의 인간적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은 여전히 인간의 시간 위에 존재하며, 감정의 깊이는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측정될 수 없다. AI 시대의 예술이 품어야 할 과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기술 속에서도 인간이 감응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일이다.

예술은 결국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며, 『천추시송』은 그 오래된 질문을 새로운 매체 위에서 다시 묻는다. 그것이 이 작품이 가진 가장 큰 의미이자, 본 연구가 도달한 결론이다.

參考文獻

- 발터 벤야민 지음, 심철민 옮김,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서울: 도서출판 b, 2017).
- 장윤천. 「디지털 접근성이 AIGC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관객의 지속적 시청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AIGC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천추시송』 관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24년, 42(4).
- KOTRA, 「추격자에서 선도자 꿈꾸는 중국 AI 굴기(崛起)」, 『KOTRA 해외시장뉴스』, 2025년 2월 25일,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355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26060(검색일: 2025년 7월 2일).
- 吕良, 孙亮, 「文化传承视域下AIGC在“诗动画”中的创新应用——以“千秋诗颂”为例」, 『中国广播影视』, 2024年 第23期.
- 孟颖, 娜仁通力嘎, 「浅谈中央广播电视总台AI动画片『千秋诗颂』的创新与探索」, 『中国广播』, 2024年 第6期.
- 王铄, 鄧秋鵬, 「文生視頻賦能“傳播+教育”新實踐——以中國首部文生視頻AI動畫片『千秋詩頌』為例」, 『山西青年』, 2024年 第8期.
- 李丹, 「首部中國原創文生視頻AI系列動畫『千秋詩頌』播出——一場中國詩詞與人工智能的“雙向奔赴”」, 『影視制作』, 2024年 第3期.
- 張秀麗, 李景薇, 「論文生視頻AI動畫片『千秋詩頌』的“技術+文化+藝術”創新」, 『新聞知識』, 2024年 第9期.
- 郑若林, 「基于AI技术的古诗类短视频创作中的视觉化策略研究——以『千秋诗颂』为例」, 『传媒论坛』, 2025年 第12期.
- 郑玄, 「AIGC环境下文化类节目的创新表达:以央视动画片『千秋诗颂』为例」, 『现代视听』, 2024年 第10期.
- 「加快形成新质生产力:是什么、为什么、做什么?」, 國家信息中心 中國經濟信息网, 2024年 2月 6日,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9/84a815a4529f425ca7961367efa8114f/c.html>(검색일: 2025년 7월 2일).

「具身智能到底是什么?跟机器人又有什么不同?」, 人民网, 2025年 3月 11日,
<http://kpzg.people.com.cn/n1/2025/0311/c404214-40436119.html>(검색
일: 2025년 7월 2일).

「收视第一!中国首部文生视频AI动画片『千秋詩頌』首播反响热烈」, 人民网,
2024年 2月 28日,
<http://politics.people.com.cn/n1/2024/0228/c1001-40184715.html>(검색
일: 2024년 6월 10일).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中国政府网, 2017年 7月 20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검색일: 2024년 7월 18일).

「在中國科學院第十七次院士大會、中國工程院第十二次院士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 2014年 6月 10日,
<http://cpc.people.com.cn/n/2014/0610/c64094-25125594.html>(검색일:
2024년 7월 18일).

「『千秋詩頌』第一集来啦!」, 小紅書, 2024年 2月 28日,
https://www.xiaohongshu.com/explore/65dd7c2200000000102b433?xsec_token=ABGEguKKriK147VvY2hFT7r0I-P5-27-hjRQII75r9iDc=&xsec_source=pc_search&source=web_explore_feed(검색일: 2024년 6월
10일).

「千秋詩頌短評」, 『豆瓣電影』,
<https://movie.douban.com/subject/36788792/comments?status=P>(검색일
: 2024년 6월 10일).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aris:
UNESCO Publishing, 2023.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s 'Aura' in the AI Era: A Study of Qianqiu Shisong

Choi, Young Joon · Bae, Ju A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the aura of traditional art is transformed and recontextualized in the age of generative AI, focusing on China's first AI-generated animation, Qianqiu Shisong. Drawing on Walter Benjamin's theory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the research explores how technological reproducibility reshapes the social function and aesthetic perception of art in the digital era.

Qianqiu Shisong, produced under China's national strategy of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embodies the intersection of technological efficiency, political symbolism, and cultural representation. While its production achieved remarkable efficiency—reducing the process by half through the adoption of AI—the work simultaneously revealed the paradox of aesthetic standardization and emotional attenuation. This demonstrates that the pursuit of efficiency cannot fully replace the qualitative depth of artistic experience.

To evaluate this tension, the study introduces the Efficiency–Quality Balance Index (EQ Index) as a conceptual framework. The EQ Index consists of four interrelated categories—production efficiency, expressive diversity, chromatic variability, and audience responsiveness—serving as a critical tool for assessing whether AI-based art maintains or loses aesthetic and affective balance under the logic of productivity.

Ultimately, Qianqiu Shisong exemplifies how technological progress does not necessarily entail artistic advancement. The study argues that the future of art in the AI era lies not in substitution but in collaboration, where human creativity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coexist in a balanced and ethically grounded creative ecosystem.

Key words : AI Animation, Walter Benjamin, Aura, Traditional Culture, Chinese AI Industry, Technical Reproduction, Qianqiu Shisong

투 고 일 : 2025. 10. 10. / 심 사 일 : 2025. 10. 15.~ 2025. 11. 15. / 게재확정일 : 2025. 11. 20.

